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나

<sup>31</sup>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sup>32</sup>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sup>33</sup>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sup>34</sup>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 의 거룩한 자니이다 <sup>35</sup>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sup>36</sup>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데도 다 하더라 <sup>37</sup>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눅4:31-37)

거듭남의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인

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진리를 믿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의 사실로 알 수 있다. 즉 가장 나쁜 사람들도 진리를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인정하지는 않는다. 유대인이나 그럴듯한 논리로 교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리고 진리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진리를 강론하고, 입증하며 열정적으로 설득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 (AC.896)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96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o know is the first thing of regeneration, to acknowledge is the second, to have faith is the third. What difference there is between knowing, acknowledging, and having faith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the worst men may know, and yet not acknowledge, like the Jews and those who att*

눅4:31-37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나’

*empt to destroy doctrinal things by specious reasoning; and that unbelievers may acknowledge, and in certain states preach, confirm, and persuade with zeal; but none can have faith who are not believers.*

이는 창세기 8장 13절,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건헨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건헨더니’에 관한 주석 중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And Noah removed the covering of the ark and saw)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큰 화를 당할 뻔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조용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sup>31</sup>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

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갈릴리 가버나움의 동네란, 속뜻으로는 이방인의 교리를 뜻합니다. 동네는 진리나 교리를 뜻하고, 갈릴리는 이방 지역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이방인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전파하신 말씀이 유대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이방인의 진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진리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어찌면 오늘날 새 교회가 부딪치고 있는 현실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교회 진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진리가 기독교 주류 교회들의 교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의 교리와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순수한 종교의 교리는 믿음과 사랑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나’

다 가르칩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기독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새 교회 가르침은 이단 종교, 종파 가르침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그것을 주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또 주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에 가르치셨을까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유대교회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내적 의미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 자신의 자아로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다 이삭을 따 먹었을 때,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가 하고 주님을 질책했습니다. 본래

안식일의 의미는, 주님께서 지옥의 시험을 모두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간성과 내면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셨을 때의 주님의 상태, 곧 더이상 지옥의 도전이 없는, 주님 안 평화의 상태가 안식의 상태, 곧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영화(榮化)하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그동안 주님을 나타내던 모든 표상이 사라졌습니다. 빛 자체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더이상 그림자, 곧 역할 대행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진리를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32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나’

<sup>32</sup>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 러라

이 말씀에서 ‘놀라니’는 ‘사람의 내면 영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의 상태가 바뀐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아주 이기적이던 사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다면 영이 변한 것입니다. 또 자기도 몰랐던 단점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영이 변한 것’입니다. 또 큰 잘못을 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영의 상태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한 단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놀랐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영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 말씀에 놀라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진리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겨울의 햇볕은 능력이 없지만 따뜻한 봄볕은 만물을 생장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 사람들의 영이 바뀌고 있을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해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up>33</sup>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sup>34</sup>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귀신은 ‘진리를 왜곡하는 지옥의 영’을 말합니다. 지옥의 영들은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곡해, 진리인 것처럼 꾸밈니다. 왜곡된 진리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나’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는 진리를 왜곡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 대단히 지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마음대로 왜곡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는 그렇게 왜곡된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 이름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앞부분에서는 ‘우리’라고 했고요, 뒷부분에서는 ‘나’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고 있는 지옥의 영들을 나타냅니다. 그의 내면에 지옥의 영들이 한 둘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소리 지른 것은, 주님, 또는 진리에 대한 반감을 나타냅니다. 거짓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참 진리가 나타날 때 진리를 혐오합니다.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다른 종교나 교회에 계신 분들과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는 경우는 없고, 그분들이 당신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오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때 저희 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하면 조금 놀라거나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의 반응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라고 한 것은 지옥의 영들이 하는 말이고, 주님에 대한 반감, 또는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나’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사 또는 지옥의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지옥의 영이 지배할 때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묘하게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옥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나’

영들이 하는 장난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귀신 들린 자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기는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의 내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35절에서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sup>35</sup>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신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 들린 자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

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즉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 진실은 진실이라고 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영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십니다.

주님이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나오면서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렸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모습은, 참된 진리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거짓 진리가 수치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참된 진리 앞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것이 귀신이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는 모습입니다.

악령들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결과를 모두 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치 부메랑처럼 죄의 결과가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나’

신에게 돌아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철저히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곤욕과 수치의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악령이 떠나면서 우리를 무리 중에 심하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성을 하되 너무 자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지옥의 영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령들은 사람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줄 뿐이고요, 영을 해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사탄이 욕에게 한 짓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아프게 하고, 재물을 잃게 했습니다. 물론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한 것들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잃는 것이 영을 다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한, 악령들은 우리의 영을 손상하지는 못합니다. 주님

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절 말씀입니다.

<sup>36</sup>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말씀의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능력’이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가 진리이신 주님을 진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나’

라고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내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진리가 진리인 줄을 모르고 거짓이 거짓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견이 달라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대의(大義)를 위해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 협력이 있습니까, 조화가 있습니까? 무섭게 상대를 적대하고 증오할 뿐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모함하고 처절하게 죽이고 했던 것이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서로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며 싸우다가도 손을 잡은 적이 과연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들 역시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증오와 살의가 가득 찬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 안

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은 지난 2017년도 8월을 말합니다. 지난 2017년도에 있었던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3/10)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5/9)일 것입니다. 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세월호 촛불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이 모두 조작이요, 기획선동인 것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어 그때 덩달아 촛불을 지지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했던 저는 너무나도 미안, 부끄러워 고갤 못 들 지경입니다만... 네, 하여튼 당시 상황을 돌이켜볼 때, 정말 역사의 큰 변곡점의 시기였음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 상대방의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의를 위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이며 진리이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서로를 증오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이해와 관계없이 진리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나’

진리라고 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적어도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어찌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지도 모를 악한 영을 쫓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어둡고 불결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이 교회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해서 싸웁시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 새 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14:27)

아멘

원본

2017-08-27(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3-24(D6)

눅4:31-37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나’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